

# 휴폐업 속출·거리 텅텅...대표상권 발길 뚝 끊겨 '적막강산'

### 광주 코로나19 확산 비상...확진자 최다 복구 일대 가보니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이질 안잖아요. 이대로라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코로나19 공포가 확산하면서 확진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복구가 하루 종일 적막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특히 확진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한 복구 일곡중앙교회, 오치동 사랑교회 등과 인접한 동선(動線)에 놓인 상권은 행인을 좀체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최고 요지의 음식점과 옷가게들도 문을 닫았고, 식당·카페·마트·영화관 등 다중이용 시설 이용객 또한 급감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복구에서는 이날 현재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일부터 발생한 전체 확진자 133명 중 45.8%(61명)가 복구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한 지난달 27일부터 발생한 확진자 100명 중 절반이 넘는 51명이 복구 주민이다. 확진자나 접촉자들이 거쳐간 건물들도 많다.

당장, 지난 2일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던 시기만 해도 광주지역 전체 103곳의 신천지 예배당·선교센터의 절반이 넘는 55곳이 복구에 몰려 있다는 이유로 지나다니는 걸 기피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최근에는 더욱 심해졌다. 확진자나 접촉자들이 거쳐간 건물들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방역 소독을 받으면서 일대 상가는 인적이 드물 정도다. 코로나19로 전남대도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대학생들이 사라진 후로 일대 상권은 개점 휴업상태다. 지난 2일부터 나온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일에 비해 39.1%나 줄어드는 등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다.

사랑교회가 있는 오치동에만 1653개의 상가가 포진해있고 일곡동도 1400개, 용봉동은 3181개가 넘는다. 이들 3개 동의 상가는 복구 전체 상가(2만 4898)의 25%가 넘는다.

이러다보니 사람이 사람들을 피하고 외출을 꺼리는 심리가 번지고 지역민들 일상

재확산 확진자 절반이 거주 일대 집단감염에 전전공금 시민들 '집 나서기 너무 두려워'

일곡중앙교회·사랑교회 등 주변 상가 폐허처럼 썰렁 임대료·월급 걱정에 우울증

과 생활경제도 함께 쪼그라들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오전 11시께 복구 일곡중앙교회 앞 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음식문화특화거리'임에도, 셔터가 내려진 곳이 많았다.

평소 같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시간이지만 특화거리로 입점한 26개 가게 중 11개가 '코로나로 11일까지 쉽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는 휴업합니다' 등을 내걸었다.

일곡중앙교회 앞 식당 주인은 "이맘때면 주차할 자리조차 없던 곳"이라며 "하루 온종일 10명도 찾지 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 카페 주인도 "혹시나 오전에만 문을 열었다"면서 "임대료와 직원 월급 줄 생각만 하면 잠이 안와 우울증까지 생길 것 같다"고 한탄했다.

오치동 사랑교회 인근도 비슷했다. '금양오피스텔, 일곡중앙교회, 오치사랑교회, 광복사 방문자 절대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내건 업체도 눈에 띄었다.

일대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유통마트 관계자는 "평소 오전에만 배달 물량이 50건은 됐는데, 사랑교회발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손님이 끊기면서 오늘 오전에 다섯 건 배달에 그쳤다"고 말했다.

명실상부 복구 최고의 상권으로 꼽히는 용봉동 전남대 후문 일대는 "당분간 휴업한다", '임대문의'를 써붙여 놓은 상가 등으로



8일 낮 12시께 광주시 복구 오치동 사랑교회 인근 거리(왼쪽)에는 점심시간임에도 썰렁했고, 이에 앞서 오전 11시께 광주시 복구 일곡동 일곡중앙교회 앞 복구 음식문화특화 거리인 카페 유리문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을 한다는 문구가 걸려있다.

점심시간임에도 적막감마저 느껴졌다.

지난 3월까지 복구에서 폐업한 업체만 556곳. 1분기를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평균 폐업 업체(475곳)보다 17% 가량 늘었다.

중국집과 분식집 등은 매장 영업은 포기하고 배달만 하는 등 살아남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행우 전남대후문 상가변영회장은 "지난달까지 예년 절반수준의 매출을 유지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70%까지 급감했다"면서 "생업이라 버티고 있는데 장기가 되면 (폐업 외에) 방법이 없지 않겠냐"며 팔짱을 흐트렸다.

지역 상권 붕괴 우려도 높다.

복구 일곡동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2월부터 상가 매물이 잇따르고 있지만 임대인을 찾지 못해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권리금도 낮아졌지만 문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걱정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hb@



## 법원, 자동차 번호판 위조한 공무원 선처 왜?

### "사진 장비 옮기려는 단순 목적 공무원직 상실 형사처벌 가혹"

법원이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선처했다. 국립공원 정상으로 사진 촬영 장비를 편하게 옮기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형사처벌해 공무원직을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차량 번호판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

행사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국립공원 출입 통제구역에 제재없이 통과하는 공익관리사무소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수십여차례에 걸쳐 공원 내 통제구역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형(刑)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가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공기호위조죄와 위조공기호위조죄는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만 선택할 수 있다.

A씨가 차량 출입통제소를 통과할 때만 위조번호판을 사용한 점, 신호위반·과속·주차단속 등을 회피하는데 이용할 생각을 없었고 국립공원 정상에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편하게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선고 배경이다. 이번 선고유예 판결로 A씨는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병상 부족 땀 함평 국군병원·폐업 병원 활용해야"

### 보건의료 관계자들 토론회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병상이 부족해지면 함평 국군병원과 폐업한 병원을 병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전남 보건 의료 관계자들은 8일 광주시의회에서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군 함평 병원의 환자를 국군수도병원과 광주 보훈 병원 등으로 옮긴 뒤 확진자 치료 병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광주 광산구와 화순 등의 폐업 병원 건물을 구입 또는 임대해 활용하는 방안과 이용객이 감소한 일급 호텔이나 수녀원 등 종교시설을 이용하는지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북도는 코로나19 격리 병상을 공동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호남권에는 146개의 격리 병상이 운영 중이며, 95개가 사용 중이다.

전남도는 우선 광주시의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순천의료원의 병상을 기존 14개에서 최대 75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체육계에서도 폭언·폭행...협회는 소극적 대응

### 후배 상습 폭행 우수 선수 입건 협회선 출전정지 3회 경징계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운동선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트리아슬론(철인 3종) 선수 고(故) 최숙현(22)씨가 폭행·기혹 행위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광주 체육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8일 "후배를 상습적으

로 폭행한 전 광주시체육회 소속 우수 선수 A(27)씨를 경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함께 생활하던 대학생 우수 선수 B(21)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발차기 못한다", "여자친구 소개해주지 않는다", "술 마시는 것을 거절했다"며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1월 협회에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협회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A씨에게 풀이 손상을 이유로 출전정지 3회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 1월 A씨와 또 다른 선배 C씨의 폭행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폭행·모욕·협박 등의 혐의로 A씨(기소 의견)와 C씨(불기소 의견)를 경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266-4150, 573-4150, 528-4150, 513-4150, 572-4150, 576-4150